

## 退溪學이 美國人에게 주는 敎訓\*\*

미카엘 칼톤 (Michael Kalton)\*

### I. 所 感

퇴계학 학술상을 수상하고 미국에 돌아온 지 이제 일주일쯤 지났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은 아직도 그 여행에 대한 생각과 추억들로 가득 차 있다. 공항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아름답고 화창한 날씨 속에 차를 타고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으로 가서 시상식에 참여하고 기념식수를 했으며, 돌아오는 길에 수안보에서 온천욕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단지 형식적인 일들에 지나지 않는다. 나에게 보다 깊은 감동을 준 것은 퇴계학 연구원의 모든 관계자들이 베풀어 준 잊을 수 없는 호의와 친절, 그리고 인정이다.

퇴계학을 연구하게 된 것은 나에게 커다란 행운이었다. 나는 한국인과 한국의 문화를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 퇴계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 나는 내가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학자, 그리고 더 좋은 지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퇴계학은 진정한 爲己之學으로서 그것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보상이었다.

따라서 퇴계학 국제학술상을 수상한 나의 소감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큰 행운이라는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퇴계연구를 계속함으로써

---

\* Wichita대학 교수

\*\* 원제: What an America Has to Learn from T'oeogyehak. 이 논문은 제 9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췌된 것임.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57호 (1988년) 게재논문.

개인적인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이번에는2 특별한 상까지 받은 것이다. 나는 나의 업적을 인정받는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내가 이룩한 업적이 한국의 많은 훌륭한 학자들이 성취한 업적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퇴계가 사랑하며 가르친 학문방법을 나의 동료 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나의 인생에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을 준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특히 퇴계학으로 인해 만난 훌륭한 사람들에게 더욱 감사를 드린다. 또한 퇴계학을 연구하게 된 기회를 갖게 된 점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 II. 퇴계학이 미국인에게 주는 교훈

수 주일 전 미국의 예술과학원에서 2일간 개최된 학회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다. 토론의 주제는 “신유학이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끼친 영향”이었다. 몇 달 전에는 워싱턴( Washington D.C.)에 있는 윌슨 센터(Wilson Center)로부터 같은 주제로 그 센터의 소속학자들과 토론해 달라는 초청을 받기도 하였다. 미국인들이 이렇게 갑자기 신유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대답은 간단하다. 미국은 지금 동아시아국가들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을 무척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등 모든 국가가 놀라운 경제성장과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그들 국가들이 어떻게 그런 성취를 했는가를 알고 싶어한다. 그 해답은 물질적인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나은 물질적 조건을 가진 많은 국가들이 그만큼의 발달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해답은 아마도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이를 조사해보면 이들 모든 국가들에게는 단 한가지 유사한 사실이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 모든 나라들의 문화유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유학이다. 그래서 미국인은 지금 경제적 생산력과 유학의 관계를 이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신유학에 대하여 이토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진전임이 분명하다. 15년전 내가 신유학을 나의 전공으로 선택했을 때 나는 한미 양국에서 신유학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에 자주 부딪히곤 했다. 많은 사람들이 신유학을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신유학을 근대화에 대한 장애물로 간주하여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게 만든 나약한 학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제 그들 중 일부는 신유학을 서양의 상식보다 더 나은 일종의 합리성으로 여겨서 우월한 생산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이전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어 단어 “rational”을 번역한 합리라는 말의 의미를 고찰해야 한다. 현대 서양에서 “rational”은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과 가장 생산적인 방법을 서술할 경우에 종종 사용되어 왔다. 현대 한국에서도 합리라는 말은 흔히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유학은 전통적으로 그러한 가치들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비쳐져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합리의 본래 의미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췌란 사물이 있어야 하는 방식, 혹은 사람이 행해야 할 방식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때 합리는 사물이 존재해야 하는 방식에 따라 존재하고, 사람이 행해야 할 방식에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성질의 합리는 자연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유학자들은 주로 인간세계, 즉 인간관계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왔다. 우리는 이러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합리성의 본질을 孝, 仁, 그리고 敬의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신유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전통적인 의미의 합리에 해당되는 경제

는 결국 현대 서양의 합리보다 더 생산적인 의미가 된다. 그러나 효, 인, 그리고 경 등이 경제적 강국으로 이끈다고 말하는 것이 비록 웃음을 자아낼지언정 놀라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러한 가치들이 기업과 생산력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만약 우리가 이 세가지 가치들이 한국사회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보고, 또한 미국사회와 비교해 보기만 하면 효, 인심, 그리고 공경과 생산력과의 관계는 명확해질 것이다.

효는 심오한 덕이긴 하지만 한가지 간단한 일면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물음은 아마도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일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는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다른 어떤 대답이 참되더라도 전통적인 유학의 대답은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어서 의심할 것도 없이 “나의 존재는 부모로부터 유래되었고 부모라는 존재의 연속성이다.”고 할 것이다. 부모의 인생은 삶을 계속 유지하고 완성하려는 나의 인생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대답은 극히 단순하게 생각된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답이 미국인의 일반적인 견해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보다 전형적인 미국인의 대답은 “나에겐 나만의 인생이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개인주의가 좋은 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나쁜 의미를 지닌 개인주의의 본질이다. 그러한 말은 이혼하면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말과 같으며, 노인의 가정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어진 마음은 한국에서 매우 가치있는 말이다. 그래서 타인의 기분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관례다.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 자연히 문제의 일 부분-비록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으로 고려된다. 이것은 서양인들이 주로 객관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객관성이란 다른 사람의 기분이 배제되고 시간, 비용, 그

리고 이익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만 주의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에 대한 공경심을 표현하는 주요 수단은 禮이다. 한국은 “예의바른 나라”라는 말에 긍지를 느껴 왔고, 아직도 사실 그러하다. 서구사회 특히 미국은 지금 격식을 차리지 않기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를 공허한 격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예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은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좋은 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할 때가 더 많다. 따라서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면 존경심은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러한 서양의 세 가지 문제, 즉 극단적 이기주의, 비인간적인 객관성, 그리고 공경심 혹은 예의 결핍은 단 하나의 단어, 즉 영어의 “alienation”에 해당되는 “소외”로 요약될 수 있다. 소외란 일종의 분리를 의미한다.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인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공동체로부터의 분리이다. 그런데 소외의 반대 의미는 공동체에 진정으로 소속되는 것이다. 한국은 공동체주의적인 사회이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가정, 그들의 학교, 그들의 사무실 혹은 회사에 진정하게 소속되어 있다.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소속되어 있다.

미국인들도 분명 그러한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들은 주로 몸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흔히 세계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회의 하나로 묘사된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는 진정으로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간다. 객관성이라는 미명하에 감정을 배제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는 구실로 존경심을 거의 나타내지 않으며 더구나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결속을 깨트리고 있다.

만약 공동체주의적인 사회와 소외된 사회라는 두 가지 유형의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그 중 어떤 사회의 사람들이 보다 더 헌신적이고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신유학과 경제발

전, 그리고 신유학과 생산력과의 관계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만은 핵심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언급한 신유학의 성격은 사실 한국만의 문화적 전통에 해당되는 것이다. 신유학은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겐 상식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자연적인 일부분이다. 신유학은 저 고상하고 고귀한 퇴계학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상식”이란 말은 “일상적”인 “지식”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이 매일 사용하는 지식이다. 퇴계는 학문의 본질을 실용적인 것으로 보았다. 퇴계의 신유학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학문은 심오한 의미를 지닌 학문이 아니다. 퇴계학은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는 상식이다.

이 말은 문화적 전통의 하나로 상식을 물려받은 한국인들이 더 이상 다른 것은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겐 가슴만 혹은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두가지가 모두 사용될 때 깊이와 힘이 생긴다. 유학적인 이해도 없고 연구도 거치지 않은 채 전승된 유학적 문화의 가치는 피상적인 상식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깊이 박힌 뿌리가 죽으면 나무는 곧 쓰러지게 마련이다. 퇴계는 한국의 신유학을 집대성했다. 한국인은 그의 귀중한 문화적 가치들을 이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퇴계학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더구나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 위대한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이 연구는 필요하다.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전통을 깊이 이해한다면 변화는 파괴가 아닌 발전이 될 수 있다.

미국은 훨씬 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미국의 전통에는 위에서 말한 신유학의 실용적인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유학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미국은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신유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서 주된 위협은 단지 이론

적인 이해수준에 머무르고 말 것이라는 데에 있다. 지금 미국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퇴계적인 신유학의 본질인 실용의 학문이다. 미국은 이론철학도 배워야 하지만, 그 보다는 우리의 내면생활을 수양하는 방법을 말해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지도자가 더 필요하다.

‘성학십도’와 퇴계의 문집에 들어 있는 많은 편지글 속에서 나는 지적으로 위대한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늘 수양으로 일관한 섬세하고 박식한 지도자로서 더욱 위대한 퇴계를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퇴계야말로 내가 미국에 소개하고 싶은 퇴계이다. 퇴계학에 있어서 이 두가지의 분리될 수 없는 측면은 미국이 다른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원 열 譯)